자연에서 이웃으로 폭 넓어진 시 세계

시집 '꽃의 권력' 낸 고재종 시인
삶의 비극적 실존에 집중
있는 그대로 보며 극복해야

"예전에 농사를 짓다보니 농민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농업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생태시에 매료됐구요. 그러나 지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의'나 '이념'이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보는 것이죠."

담양 출신 고재종〈사진〉 시인은 한때 '농민시인'으로 불렸다. 농사를 생계로 삼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농사와 자연이 연계되니 그의 시가 '생태시'로 불렸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시가 그런 카테고리 속에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생태적 관점을 청산한 게 아니라 시야의 확장"이라는 말에서 고민의 지점을 엿볼 수 있다.

13년 만에 신작 시집 '꽃의 권력'(문학수첩)을 펴낸 시인은 홀가분해보였다. 작품집을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도록 시를 붙들고 있었던 모양이다. 질박해 보이는 인상은 더 수수해지고 깊어졌다.

시인은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을 지나 올해 환갑을 맞았다. 모든 해를 겪어보고 다시 처음 자리에 선다는 의미만큼이나 시를 바라보는 시인의 눈은 깊어지고 예리해졌다.

그의 유년과 청년기는 우울하고 고독했다. "9남매와 부모님까지 열두 식구가 논 뙈기도 별로 없이 그야말로 죽세공 하나로 호구지책을 하던 극빈의 시절을 겪었다"는 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폐의 내면 공간에 책이라는 존재가 찾아들면서 그의 문학인생이 시작된다. 책을 매개로 문학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고향 담양을 소재로 한 시를 썼던 1980년대, 그는 대표적인 농사꾼 시인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척박한 농촌의 현실을 일관되게 다루며 문학적으로도 일정한 균제미를 갖추었다"('날랜 사랑' 해설)는 수사는 그의 시적 성취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1984년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온 이래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노래한 시들을 썼다. 정직한 농민의 삶을 시로 승화해 18년간 6권의 시집을 펴냈다.

이번에 발간한 작품집에는 모두 64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몸이 아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그는 이번 시집에서 삶의 비극적 실존에 집중한다.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뒤 자연스레 '나의 이웃'에게로 시선이 전이된다.

"우리 주변에는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등과 같은 소외된 이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민중'의 집단에도 들지 못하는 이들이죠. 나의 아픔을 들여다보니 자연스레 그들의 상처도 보이기 시작했지요."

시인은 '나의 이웃'을 "노동자와 농민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마치 카프카의 '성'(城)에 나오는 대중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들이다.

"나는 절망하기 위해 귀찮은 신을 내몰았다/ 낙엽처럼 가벼운 말엔 넋을 놓고/ 둥치의 묵중한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에서/ 내 안에서 끝없이 지속시켜 온 열정이/ 내 안을 다 태워 버린 후 발견한 문 한 짝"('국외자' 중)

'국외자'는 시인의 인식의 단면이 드러난 작품이다. "국외자로 표상되는 소외의 근원은 배타성 때문입니다. 밖에서 문을 잠궜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와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는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강조한다. "나도 아프지만 내 이웃도 아프다"는 공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구도자'에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나무는 결가부좌를 튼 채 먼 곳을 보지 않는다/ 나무는 지그시 눈을 감고 제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중략) 나무는 나무이다가 계절이다가 고독이다가 우주이다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나무이기에 나무이다// 제 머리숲을 화들짝 열어 허공에 새를 쏘아 댄들/ 나무는 거기 그만한 물색의 한 그루 나무로 서 있다"

시인은 실존적 상황의 소외된 존재를 '나무'로 이미지화한다. 그 나무는 '구도자'다.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스스로 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비극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결코 아픔이나 상처는 극복되지 않거든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최소한의 극복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고재종 시인은 '새벽 들', '사람의 등불'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고 신동엽문학상, 시와시학상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광주비엔날레 대표의 덕목

인구 20만 명의 독일 카셀은 불과 60여 년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이 찾지 않는 삭막한 도시였다. 하지만 지난 1955년 국제현대미술축제 '카셀 도큐멘타'가 창설된 이후 확 바뀌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술이벤트를 보기 위해 100만 여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도시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폐막한 카셀 도큐멘타 조직위원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카셀(6월10일~9월17일)과 그리스 아테네(4월8일~7월16일) 두 곳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한 탓에 부도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미술잡지 '아트넷뉴스'는 올해 예술감독을 맡은 아담 심측(Adam Szymczyk)이 무리한 전시기획으로 700만 유로(한화 94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보도했다. 심측 감독은 300팀이 넘는 작가와 80곳이 넘는 전시장에 1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이느라 400억 원의 예산을 썼다. 200여 점에 달하는 아테네 현대미술관 소장품을 카셀로 빌려오면서 막대한 운송비 등을 지출한 것이다. 여기에 테러공포가 확산되면서 관람객이 이전 대회에 비해 3%(80만여 명)나 줄었다.

이렇다 보니 수십 여 명의 큐레이터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급기야 행사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기되자 카셀도큐멘타 조직위는 카셀시와 주도(州都)인 헤세에 SOS를 보냈고 두 지자체가 350만 유로(42억 원)를 지급보증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카셀도큐멘타의 딱한 사정을 늘어놓은 이유는 재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아무리 퀄리티 좋은 전시회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최근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총괄큐레이터 겸임을 놓고 지역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비엔날레재단이 최근 2018 광주비엔날레 기본구상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다수 큐레이터를 도입하기로 하고 김선정 대표에게 이들을 지휘할 총괄큐레이터를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총괄큐레이터를 맡는 건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이다.

김 대표의 총괄큐레이터 겸임은 기대 보단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비엔날레 대표는 조직운영, 재정확충, 행정을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수년째 285억 원에 그치고 있는 재단기금과 관객감소로 인한 저조한 티켓수익을 감안하면 '비즈니스'에 올인하기에도 벅차다. 게다가 올해 기획재정부의 일몰제(국비 10억 원 이상 7회 이상 개최한 국제행사지원을 축소하는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당장 내년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 처한 작금의 비엔날레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표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시가 유명 전시기획자인 김씨를 영입한 것도 문화마인드와 국내외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를 기대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상근이사장제가 폐지된 현 재단의 입장에선 경영수완과 리더십을 갖춘 CEO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큐레이팅과 펀드레이징(기금확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자못 궁금하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25년째 사랑실천 '노래봉사단' 추석맞이 공연

오늘 광주 귀일원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은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이 추석명절을 맞아 512회 특집공연을 연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27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남구 봉선동 귀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날 공연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노래로 풀어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성민하, 장혜진, 채나리, 강성래 등이 출연하며 이카루스 안무단이 댄스무대를, 이코러스합창단이 코러스를 준비했다.

이 밖에도 범지율 원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밸리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퓨전난타 5인조의 난타공연과 마술공연인 '신비한 마술의 세계'도 펼쳐질 예정이다.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은 1993년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교사, 회사원, 주부 등이 모여 만든 단체다. 지역내 복지시설 등에 매월 한차례씩 방문해 현재까지 511회의 공연을 펼쳤으며 약 9억5000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효중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장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집공연을 마련했다"며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공연 모습.

'근원 구철우'전 작품설명회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27일 오후 2시30분 '매향, 근원 구철우'전 전시 작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근원 선생의 제자인 담헌 전명옥〈사진〉 선생이 출품작들에 대해 설명하며 국악 공연도 곁들여진다.

화순 출신 근원 선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서예와 묵화 그림 55점을 비롯해 유품 50여점이 출품됐다. 전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613-7143. /김미은기자 mekim@